재외동포의 창

03
2016

특집 _ 차세대 동포 기업인의 나눔 릴레이 '한상 꿈꾸는 교실' 광주 고려인학교, 베트남 장애학교, 태국 한국학교 지원
화제 _ 한지 의상으로 호주 여성 눈길 끈 한지문화제 전주 한지의 실용성에 감탄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백제인의 심성 담은 무늬 벽돌

다양하게 벽면 장식한 여덟 가지 무늬

1

2

3

백제 미술의 특징을 흔히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세련됐다고 말한다. 백제의 기와나 벽돌에 보이는 무늬들은 동시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도 훨씬 더 정제되고 세련되며 우아한 느낌을 준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에서 발굴된 무늬 벽돌은 특별히 주목된다. 이 유물들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37년 3월로, 한 농부가 나무뿌리를 캐다가 우연히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이곳에서 발견된 무늬 벽돌은 모두 여덟 종류로 산수무늬 벽돌(2종), 귀신무늬 벽돌(2종), 반룡무늬 벽돌, 봉황무늬 벽돌, 연꽃무늬 벽돌, 연꽃구름무늬 벽돌 등이 있다. 각각의 무늬 벽돌은 크기와 두께가 일정한데 한 변의 길이가 28~29cm의 정방형이고 두께는 4cm 정도이다. 벽돌의 네 모서리에는 사각형의 홈이 파여 있는데, 이것은 상하 좌우로 무늬 벽돌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다른 무언가를 끼우기 위해 마련된 흔적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무늬 벽돌은 벽면을 장식하는 벽돌일 가능성이 크다.

봉황무늬 벽돌에 새겨진 봉황은 머리, 몸통, 날개, 꼬리를 측면에서 그린 것이다. 용무늬 벽돌의 경우 툭 불거진 두 눈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용은 왼쪽 앞발을 치켜들고 머리에는 두 개의 뿔이 나 있다. 연꽃무늬 벽돌은 연판에 당초무늬가 배치돼 있고, 연꽃구름무늬 벽돌은 연꽃과 구름무늬가 함께 배치돼 있다.

귀신무늬 벽돌의 귀신은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린 얼굴과 신체 표현이 약간 기괴한 모습이다. 귀신의 발 아래쪽은 연꽃무늬로 장식돼 있다. 이 귀신은 연꽃무늬로 상징되는 불교적인 세계 위에 버티고 서 있는 신성한 동물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창

1.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백제 시대의 봉황무늬 벽돌
2. 연꽃무늬 벽돌
3. 귀신무늬 벽돌

CONTENTS 2016. 03

재외동포의 창

02 **한국의 얼** 백제인의 심성 담은 무늬 벽돌
다양하게 벽면 장식한 여덟 가지 무늬

04 **특집** 차세대 동포 기업인의 나눔 릴레이 '한상 꿈꾸는 교실'
광주 고려인학교, 베트남 장애학교, 태국 한국학교 지원

06 **동포소식** 멕시코 한인 변호사, 소외지역서 무료 법률 봉사 외

09 **동포 캘린더** 워싱턴 프리어 · 새클러 미술관 코리아 데이 행사 외

10 **기획** 큰 부자 없어도 안정된 생활, 스위스 한인사회
5개 지역 한인회 화합 과시

12 **화제** 한지 의상으로 호주 여성 눈길 끈 한지문화제
전주 한지 실용성에 감탄

14 **글로벌코리안** 캐나다 주 고등법원의 한인 최초 여성 판사 그레이스 최
도쿄에서 한국 도서 전문 북카페 운영하는 쿠온코리아 김승복 대표
미슐랭 '별' 받은 프랑스 거주 한인 셰프 이영훈 씨

16 **지구촌통신원** 한인 시장 둔 페루 찬차마요시에 한국의 무상 지원 잇달아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일하다 다치면?
"귀국한 외국인도 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어요"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국민 단합과 국회의 하나 된 힘 호소

19 **OKF 뉴스** 조규형 이사장, 각국 한글학교에 격려 메시지 외

20 **동포의 창**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에 앞장선 정광수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운 한평생

22 **동포문학** 콩나물
김태수 _ 미국 _ 2015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24 **고향의 맛 · 멋** 경상북도 영덕군 특산물 영덕대게
"이 맛 모르고 이 봄 보내지 마소"

26 **재단 공지**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 차세대 한상(韓商)의 모임인 'YBLN'(영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 소속의 기업인들이 한인학교 등을 후원하는 나눔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YBLN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의 '새날학교'에 이어 11월에는 베트남 호찌민 한국국제학교에 '한상 꿈꾸는 교실'을 후원했고 지난 2월 26일에는 태국 방콕 한국국제학교에도 한상 꿈꾸는 교실 3호를 세웠다.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동포 기업인의 나눔 릴레이 '한상 꿈꾸는 교실'

광주 고려인학교, 베트남 장애학교, 태국 한국학교 지원

1

재외동포 차세대 한상(韓商)의 모임인 'YBLN'(영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 회장 박원규) 소속의 기업인들이 앞다투어 한인학교 등을 후원하고 나섰다.

YBLN은 재외동포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한상대회에서 차세대 기업인들이 결성한 단체. 31개국 17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6일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에서 '한상 꿈꾸는 교실' 3호 현판식을 열고 전자칠판 3세트 등 교육기자재를 기증했다. 태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이상준 JMM인터내셔널 대표가 전자칠판 등의 구입비용을 댔다.

'한상 꿈꾸는 교실'은 YBLN이 주축이 돼 한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을 후원하는 기부 릴레이 프로젝트다.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의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에 음악 기자재 등을 후원하면서 1호로 지정했다.

당시 국내 YBLN 회원인 삼익악기의 김민수 사장은 강제이주의 슬픈 역사를 지닌 고려인들을 돕겠다며 새날학교에 디지털 피아노 · 우쿨렐레 · 기타 · 하모니카 등을 지원했고, 4년제 대학이나 음악학과로 진학하는 고려인 청소년에게 삼익문화재단을 통해 장학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삼익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고려인마을 공동체인 (사)고려인마을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 호찌민시 한국국제학교에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지원하는 2호가 문을 열었다. 장애 학생 9명과 특수 교사 2명을 위해 직업교육 교재, 장애인용 화장실, 특수 가구 등이 새로 갖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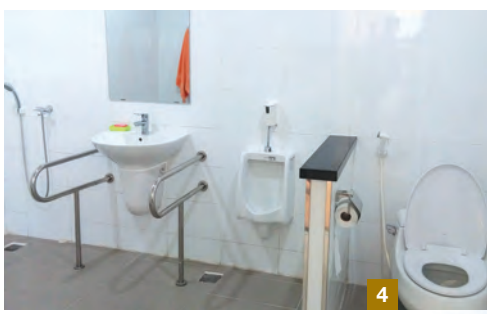
후원에 필요한 비용은 'ANGEL VIETNAM' 손창빈 대표, 'Aztec System' 임기영 대표, 'PTV' 최분도 대표, 'SUNGHYUN VINA' 이성현 대표 등이 기부했다.

이들은 호찌민시 한국국제학교에 장애인 학급이 있긴 했지만 별도의 지원이 없어 장애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상 꿈꾸는 교실' 프로젝트는 YBLN 회원이 기부의 뜻을 밝히면 집행부와 재외동포재

2

3


4

단이 함께 해당 지역의 동포 차세대 교육기관에 필요한 것을 조사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원규 회장은 "'한상 꿈꾸는 교실'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차세대 육성 교육을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이전에도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돕기도 했으나 동포사회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꿈꾸는 교실'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3호 지정 현판식에 참석해 한상과 동포 교육 관계자들을 격려한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한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한상 꿈꾸는 교실'은 후원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꿈을 심어주고 있다"며 "더욱이 비즈니스 규모 등에서 볼 때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차세대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나눔에 때와 장소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은 YBLN 회원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리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CIS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어서 '한상 꿈꾸는 교실'이 동포사회 곳곳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BLN 관계자는 "우선 한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포단체,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회원만이 아니라 세계한상대회를 이끄는 리딩 CEO, 동포 기업, 경제단체, 한인회, 상공회 등 누구라도 '한상 꿈꾸는 교실'에 함께할 수 있다"고 참여를 호소했다.

YBLN은 고국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장학금 후원에도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월 25일 국내 고교생과 대학생 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생들은 앞으로 1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며, 내부 심사를 거쳐 1년마다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창

1. 베트남 호찌민시 한국국제학교의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에서 '한상 꿈꾸는 교실' 2호 현판식이 열렸다.
2. 재외동포재단과 YBLN은 지난 2월 26일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에서 '한상 꿈꾸는 교실' 3호 현판식을 열고 전자칠판 3세트 등 교육기자재를 기증했다. 사진 좌측부터 박원규 YBLN 회장, 조병록 방콕한국국제학교 교장, 이상준 JMM인터내셔널 대표,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3. 베트남 호찌민시 한국국제학교의 '한상 꿈꾸는 교실' 2호. YBLN은 이곳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교재, 장애인용 화장실, 특수 가구 등을 후원했다.
4. YBLN이 베트남 호찌민시 한국국제학교에 후원한 장애인용 화장실
5. 재외동포재단과 국내외 차세대 기업인 모임인 'YBLN'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고려인 대안학교인 새날학교를 '한상 꿈꾸는 교실' 1호로 지정하고 음악교육 기자재 등을 기증했다.

멕시코 한인 변호사, 소외지역서 무료 법률 봉사

멕시코에서 재능 기부를 실천하는 한인 기업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무료로 법률 상담과 회계 자문을 해주는 문더스 아페르투스(MUNDUS APERTUS · 열린 세상이라는 뜻) 로펌이 그 주인공. 문더스는 12명의 변호사와 4명의 회계사, 9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멕시코시티와 몬테레이에 사무실을 둔 법률회사다. 엄기웅(43) 문더스 법무법인 대표는 "10년 전 공기업 직원으로 멕시코 땅을 처음 밟았는데 어느덧 멕시코 변호사까지 하게 됐다"며 "멕시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눔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문더스 아페르투스가 소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과 진료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문더스 소속 변호사와 직원도 엄 대표의 뜻에 공감해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사회봉사를 시작했고, 2월 20일 멕시코시티 소치밀코 성당 옆 광장에서 15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6번째 봉사 활동을 했다. 5회 때까지는 문더스 법무법인만 봉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아쿠데'(ACUDE)라는 사회봉사 단체가 동참해 무료 진료, 무료 이발을 펼쳤다. 아쿠데는 소외된 지역 주민의 자활과 갱생을 돕고자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법률 자문은 관청과의 문제, 집안 문제, 노동 문제, 이웃집과의 분쟁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사회보장청 기금 납부 계산 방법, 주택기금 납부 기록 삭제에 대한 문의, 세금 과태료 이의 제기, 재산세 부과 정정 등과 같은 회계 자문도 한다. 주민들은 주최 측이 나누어 준 한국 찐빵을 손에 들고 맛있다는 칭찬의 뜻으로 엄지손가락을 연방 치켜세우며 즐거워했다.

시카고트리뷴 한인 기자 존 김, 2016 세계보도사진전 입상

미국의 유력 일간지 시카고트리뷴에서 사진기자로 활동 중인 한인 존 J. 김(한국명 김주호 · 41) 씨가 2016 세계보도사진대전(WPP) 수상자 가운데 포함됐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시카고 선타임스 소속으로 퓰리처상 지역보도 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보도사진계 최고 권위의 상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존 김 씨는 작년 11월 흑인 총격 사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서 흑인 시위자와 경찰이 긴박하게 대치한 순간을 포착해 2016 세계보도사진대전(WPP) 수상자 가운데 포함됐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WPP 재단은 2월 18일 현행 이슈 · 일상 · 일반 뉴스 · 장기 프로젝트 · 자연 · 사람 · 스포츠 · 긴급 뉴스 8개 부문 수상작과 수상자 45명을 발표했다. 올해로 59회를 맞은 이 보도사진대전에는 전 세계 128개국 5천775명의 사진기자가 총 8만 2천951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김 씨의 사진 '경찰폭력 반대 행진'(March Against Police Violence)은 현행 이슈 싱글 부문 3위에 올랐다. 이 사진은 시카고 경찰국 소속 백인 경관이 흑인 10대 절도 용의자에게 16발의 총격을 퍼부어 사살한 사건 현장 동영상이 공개되며 촉발된 대규모 항의 시위 현장에서, 흑인 청년과 경찰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눈을 응시하는 순간을 담고 있다.

만 7세 때인 1982년 부모님을 따라 시카고로 이민한 김 씨는 명문 주립 일리노이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다 사진에 관심이 생겨 4학년 때 전공을 바꾼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오클랜드트리뷴에서 5년간 근무한 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시카고 선타임스에서 일했고, 선타임스가 정규직 사진기자를 전원 해고하기 전인 2013년 초 시카고트리뷴으로 자리를 옮겼다.

엘리트 한인 2세 모임 '넷캘' 10년간 차세대 한인지도자 육성

미국 주류 사회에서 활약하는 재미 한국계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인 '넷캘'(NetKal: Network of Korean American Leaders)이 창설 10돌을 맞았다. 재미동포 1.5세와 2세로 구성된 한국계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인 넷캘은 USC 아 · 태리더십센터가 지난 2006년 2월 창설했다. 2006년 2월 넷캘 펠로(회원) 1기가 결성된 이래 지난해 넷캘 9기까지 모두 226명이 배출됐다. 넷캘은 '미국 내 한인 공동체를 이끌어갈 동량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활약하는 재미 한국계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인 '넷캘'이 창설 10돌을 맞았다.

이들은 대부분 하버드 · 프린스턴 · 컬럼비아대 등 아이비리그와 스탠퍼드 · UC버클리 · USC 등 명문대 출신들이다. 워싱턴DC 정계와 글로벌 기업, 금융계, 비영리단체 등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30~40대 젊은 인재들이다. 한인 최초로 LA 시의원에 당선된 데이비드 류(40)는 넷캘 2기이며, 론 김(37) 뉴욕주 하원의원은 넷캘 4기다.

지난해 9기 넷캘 펠로는 데이비드 이 국무부 유엔대표, 김종선 국방부 전략분석가, 제시카 심 MSNBC 프로듀서 등 정부 · 기업 · 비영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 26명으로 구성됐다. 9기 펠로의 46%(12명)는 워싱턴DC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여 명이 연방정부 기관에 소속돼 있다.

넷캘 프로그램을 창설한 이제훈(57) USC 아 · 태리더십센터 소장은 2월 21일 "넷캘 펠로들이 미국 내에서 독도 ·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한미 경제협력, 한류 확산 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신임 회장 "차세대 한인 과학자 적극 육성"

미국에는 대학, 연구소, 정부 기관 등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과학자 모임이 따로 있다. 45년 역사를 자랑하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다. 1971년 회원 69명으로 출발해 이젠 6천여 명을 거느린 단체로 성장했다. KSEA 차기 회장인 유재훈(56) 미국 알링턴 텍사스 주립대(UTA) 교수는 "젊은 한인 과학자가 미국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차기 회장인 유재훈(56) 미 알링턴 텍사스 주립대(UTA) 교수

물리학과 교수인 그는 KSEA 45대 회장으로 선출돼 오는 7월 취임한다. 한평생 강의실과 연구실을 지키며 입자 연구에 몰두해온 그가 이처럼 '대외 활동'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뭘까.

"미국에서 한국계 과학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요. 미국 정부기관이든, 연구소든, 대학이든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계 과학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한국계 과학자들은 실력과 가능성이 뛰어난데도 아직 그만큼 평가받지 못한 면이 있죠. KSEA가 한미 과학계 교류를 넓히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해온 만큼 저도 차기 회장으로서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유 교수는 특히 1년 임기로 KSEA를 이끌면서 차세대 한인 과학자 육성에 힘쓰겠다는 각오다. 미래 선형가속기 세계물리패널 위원, 한국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프로그램 위원 등도 맡고 있는 유 교수는 "입자 연구는 궁극적으로 우주를 이루는 힘의 원리를 찾는 길로 이어진다"면서 "복잡해 보이는 입자 연구가 알고 보면 실생활 곳곳에서 적용될 수 있듯이 한미 과학계 교류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성과도 나오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펠르랭 퇴진, 입양아 출신 플라세 프랑스 국가개혁 장관 취임

2월 11일 프랑스 개각에서 한국계 입양인인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 문화장관이 퇴진하고 또 다른 입양인인 장 뱅상 플라세(47) 상원의원이 국가개혁(Reforme de l'Etat) 장관에 새로 취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유럽 생태 녹색당(EELV, 이하 녹색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플라세 신임 장관은 경쟁력과 사회 결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를 개혁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입양인 출신 장 뱅상 플라세(47) 상원의원이 국가개혁 장관에 새로 취임했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뒤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지낸 플라세 장관은 1975년 프랑스에 입양됐다. 이후 그는 4남매를 둔 양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프랑스인으로 컸다. 1993년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2011년 43세에 상원의원에 당선돼 어릴 적 꿈을 실현했다.

자신을 버린 모국인 한국을 한동안 외면했던 플라세 장관은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딸이 태어난 뒤에야 한국과 화해했다. 플라세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파리에 있는 한국 식당을 자주 찾는 플라세 장관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비빔밥을 꼽았다.

2012년 5월 올랑드 대통령 당선 직후 입각한 펠르랭 장관은 3년 반 만에 내각을 떠났다. 펠르랭은 중소기업·디지털경제장관에서 통상국무장관을 거쳐 지난 2014년 8월 문화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펠르랭은 문화부의 텃세와 견제 등에 밀려 적지 않은 잡음을 내다가 이번에 결국 대통령 보좌관인 오드레 아줄래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물러났다.

월드옥타 상임집행위원 서울서 모여 발전 방안 모색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2월 1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6년 주요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상임집행위원회와 차세대위원회 워크숍을 열었다. 상임집행위 워크숍에는 박기출 회장, 박병철 이사장, 강일식 감사, 차봉규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2월 15일 상임집행위원회와 차세대위원회 워크숍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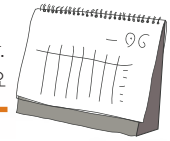
이들은 이날 하루 동안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난해 주요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 사업 방향을 설정한 뒤 발전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전 세계 70개국 137개 지회의 현황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이들은 4월 22~25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8차 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월드옥타는 올해도 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대륙별 경제인대회, 차세대 무역스쿨 현지 교육 및 모국 방문 교육, 글로벌 파트너십(GP) 프로그램, 차세대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 차세대 리더스 콘퍼런스, 차세대 글로벌 비즈니스 드림 사업,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요원 지원 사업, 종합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차세대위원회 김효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마태오·이태석·이종원 부위원장, 이휘 등 18명의 대륙별 대표도 올해 차세대 사업의 전반적인 틀을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차세대위원회는 올해 차세대 무역스쿨과 라이징 스타 선발 및 투자 유치 설명회, 차세대 창업,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 활동 등의 사업을 펼친다. 창

동포 캘린더

한인회 · 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kf.or.kr)로 보내주세요



워싱턴 프리어 · 새클러 미술관 코리아 데이 행사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프리어 · 새클러 미술관'은 5월 7일 코리아 데이(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의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 회장인 이정실(사진 오른쪽) 박사가 코디네이터로서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하고 있다. 미술관은 이번 코리아 데이 행사 직후인 5월 22일 연례 한국 영화제도 개최한다.

재일동포 극작가 정의신 작품 3편 3~6월 도쿄서 상연

재일동포 극작가 겸 연출가인 정의신(60)의 작품이 3월부터 6월까지 일본 도쿄(東京)에서 상연된다. '야키니쿠 드래곤'은 3월 7~27일, '예를 들면 들에 피는 꽃처럼'은 4월 6~24일, '미용실 제비꽃'은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도쿄 시부야(澁谷)의 신국립극장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일본 효고(兵庫)현에서 출생한 정의신은 1987년 극단 신주쿠료잔파쿠(新宿梁山泊)를 창립했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독한인간호협회 간호사 파독 50주년 행사 개최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윤행자)는 훌륭한 개척정신으로 전 세계에 사랑을 실천한 한인 간호사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자축하는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행사를 5월 18일부터 4일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에센에서 개최한다. 재외한인간호사회(회장 모니카 권)와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후원하며 학술대회, 기념행사, 광산 박물관 견학 등이 펼쳐진다.

재일동포 조선옥 씨 일본서 한식 요리 경연대회 개최

일본에서 '한식 전도사'로 불리는 조선옥(49) 일한농수산식문화협회 회장이 3월 27일 사이타마(埼玉)현의 고마(高麗)신사에서 '고구려를 맛보자–고구려 · 한국 재현 요리 체험' 행사를 열고 4월 30일에는 도쿄에서 한식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도쿄에 최초로 한국식 '떡카페'를 차리고 일본어로 '가장 친절한 한국 요리', '조선옥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한국 떡' 등을 저술한 그는 일본인 한식 요리사를 양성하고 있다.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70개국서 시행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46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이하 토픽)이 4월 16~17일 한국을 비롯한 70개국 237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토픽은 Ⅰ(1~2급), Ⅱ(3~6급)로 나눠 시행된다. 토픽Ⅰ은 듣기 · 읽기(200점), 토픽Ⅱ는 듣기 · 쓰기 · 읽기(300점) 등을 평가한다. 채점 결과는 5월 26일 홈페이지(www.topik.go.kr)에 발표한다.

한미문화예술재단 제6회 미주 춘향 선발대회

창립 11주년을 맞은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은 4월 1일 애넌데일 코리아 모니터에서 제6회 미주 춘향 선발대회를 연다. 한국에서 열리는 미스 춘향 선발대회 본선에 참가할 미주 대표 춘향 선발은 1993~1999년생의 미주 한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재단은 같은 날 메릴랜드 월도프에 있는 웨스트레이크 고등학교와 토머스스톤 고등학교에서 제7회 찾아가는 한국문화 교실도 연다.

큰 부자 없어도 안정된 생활, 스위스 한인사회

5개 지역 한인회 화합 과시

1

2

3

1. 스위스한인연합회 소속 동포 50여 명은 2010년 12월 17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 앞 광장에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 규탄 및 평화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2. 스위스를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 20일 스위스 베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스위스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3. 2014년 1월 20일 스위스 베른 거주 동포들이 연방의회 연방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식환영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스위스에는 2천468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는 600명, 영주권자는 476명, 나머지는 일반 체류자이다. 주요 거주 지역은 제네바, 취리히, 보, 베른 등이다.

한국과 스위스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은 지난 1963년 2월 11일 발표됐으며 스위스는 이에 앞서 1962년 12월 19일 한국을 승인한 바 있다. 1963년 3월에 베른에서 우리나라의 상주 공관이, 한국에서 스위스대사관이 1964년 6월에 각각 업무를 시작했다. 스위스는 1974년 12월 북한을 승인했지만, 상주 공관은 설치하지 않고 중국대사관에서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에 한인이 거주하게 된 시초는 유학생이었으며, 1921년에 이관용 박사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럽에서 최초로 취리히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들 유학생은 일부 국제결혼을 한 한인 여성과 한인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스위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이민 접수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한 한인처럼 일가친척을 초대하는 초청 이민은 없었다.

스위스에 국제결혼한 한국 여성이 특히 많은 것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상임국가로서 감시요원으로 한국에 파견된 스위스 군인 중 일부가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1953년 이래 60여 년간 정전협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 · 조사하며 판문점에서 근무한 스위스 군인은 1천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 2009년 10월 6일 450년 역사를 지닌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에서 1980년 취리히대학의 강좌가 폐쇄된 이후 거의 30년 만에 첫 한국어 강좌가 열렸다.

5. 1973년 스위스로 입양된 실비 만티노(여) 씨가 2010년 10월 12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충현원에서 남편 마르코 만티노 씨와 전통 혼례를 치르고 있다.

6. 토요일인 2010년 6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한국 음식점 서울식당에서 동포 150여 명이 모여 한국과 그리스의 2010 월드컵 경기를 지켜보며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이들은 비록 군인이라 해도 대부분 장교이며, 귀국 후에도 의사나 공무원으로 활약하는 등 스위스 사회에서 모두 중 · 상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과 결혼한 한인 여성 역시 교육 수준이 높으며 스위스 사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인사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스위스 여장교가 남북한 군인이 관련된 충격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볼 수 있듯 한국과 스위스는 우호 관계를 오래 유지해왔다. 그러나 한국 국민에게 미국이나 다른 우방처럼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나라는 아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청소년 시절 스위스에서 7~8년간 유학 생활을 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중립국 스위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스위스는 2013~2016년 기간에 한국을 비유럽 지역 7개 최우선 국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입양인은 대략 1천200명으로 추산되며, 독일어 지역에서는 '동아리', 불어 지역에서는 '김치'라는 단체로 한인연합회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공부나 강연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스위스한인회는 1965년 11월 차복재 씨를 중심으로 유럽에 유학한 후 스위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됐다. 1966년에는 김연주 씨가 초대 회장을 맡아 봉사하면서 한인회가 동포사회에 자리 잡게 됐다.

1968년 11월에 13명의 한인 간호사가 스위스에 왔고 1972년에는 54명의 간호사가 베른 대학 병원에 취업함으로써 한인사회는 차츰 성장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독일에서 일하던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가 계약을 끝내고 스위스로 들어와 취업했다. 이들은 1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지만 스위스의 한인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됐다.

한인회는 1980년 현 한인체육대회의 전신인 탁구대회를 처음 시작하고, 1985년 취리히 한국학교를 창설하는 등 한인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다. 스위스에는 취리히 외에도 한인 2세를 위한 한글학교가 네 곳 더 있다. 베른, 바젤, 생갈, 제네바 등지의 한글학교는 지역 한인사회의 2세 한글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1988년 1월에 한인회 회칙을 개정하면서 스위스한인회 명칭이 지역한인회의 연합중앙회인 스위스한인연합회로 바뀌었다. 1990년에 스위스 한인 체육대회가 시작되면서 이후 한인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됐다. 한인연합회는 스위스 한인사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문화, 체육 활동 등을 통해 5개 지역한인회(취리히, 베른, 바젤, 동부, 레만)와 긴밀한 유대를 이루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 가난한 사람도 없지만 개인이 큰 갑부가 되기도 어렵다. 스위스 역시 마찬가지여서 한인들은 의사, 간호사, 회사원, 예술가 등으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창

한지 의상으로 호주 여성 눈길 끈 한지문화제

전주 한지 실용성에 감탄

1

전주 한지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기 위한 한지문화제가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원장 안신영)은 15일 저녁 문화원 내에서 '2016 시드니 한지문화제' 개막식을 열고 한지 패션쇼 등을 통해 한지의 멋과 미를 소개했다.

이번 문화제는 사단법인 천년전주한지포럼과 함께 마련한 것으로 문화원 전시관에는 닥종이 인형, 합죽선, 액세서리 등 한지를 이용해 만든 공예품 60여 점이 전시됐다. 또 15, 16일에는 한지 공예 워크숍이 열리고 한지 마켓이 개설됐다. 주시드니 한국총영사 관저에서도 한지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패션쇼가 열려 현지인 모델이 한지 의상의 미를 선보였다.

개막 행사에서는 국악 연주와 전통 무용, 탈춤이 사전 공연으로 열렸고 이어 본 공연으로 호주인 모델 10여 명이 한지 의상 50여 벌을 선보여 행사장을 메운 호주인과 한인 등 약 250명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패션쇼를 감상한 클로틸드 케이터는 "의상이 한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전통과 현대의 미가 잘 어우러져 의상이 참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전주패션협회 권현주 회장은 "한지 의상이 예술 측면뿐만 아니라 실용성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호주인에게 한국 문화와 함께 한지가 가진 기능적 특징을 알리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지문화제는 2007년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그동안 독일, 체코, 캐나다, 러시아, 터키 등에서 열렸다.

'한지 공예 전도사' 호주 여성 코브니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에 사는 젠 코브니(65) 여사는 16일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한지 공예와 '운명과도 같은 만남'을 하게 된 이후 15년에 걸친 한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털어놓았다.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한지 공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지만 한지로 만든 선물을 주거나 한지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면 관심을 보입니다."

코브니 여사는 한지 공예의 매력에 푹 빠져 주변에 한지 공예의 예술적 미와 실용성을 전파하는 '한지 공예 전도사'다. 안동의 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된 남편과 함께 지난 2000년 한국을 찾으면서 한지 공예를 처음 접했다. 많은 다른 서양 여성처럼 뜨개질이나 자수를 즐겼던 만큼 금세 이국의 공예에 빠져들었다. 코브니 여사는 "한지 공예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매료됐다.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을 꼼꼼히 표현할 수 있는 데 놀랐다. 종이지만 섬유처럼 촉감이 좋은 것도 인상적이었다"고 소개했다.

2

3

4

5

1. 한지의 미에 푹 빠져 '한지 전도사' 역할을 하는 호주 여성 젠 코브니(65) 여사가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 3. 현지인 모델이 선보인 갖가지 색상의 한지 의상

4, 5. 시드니 한지문화제 행사 중 현지인 모델이 한지 의상의 미를 뽐내고 있다.

이후 부산 등 주변 지역을 찾아 한지 공예품을 감상하고, 한지공장을 직접 방문해 한지에 대한 이해도 넓혀나갔다. 안동 생활은 약 2년 만에 끝났고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5년, 다시 아랍에미리트(UAE)로 옮겨 가 7년 6개월을 지냈다. 한지를 접하기조차 어려워지면서 재료를 공급받기도, 실력을 쌓기도 벅찼지만 한지 공예에 대한 애정은 더욱 뜨거워졌다. UAE에서는 주변의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인도 출신자들을 모아 한지 공예 수업을 하면서 본격적인 '한지 공예 전도사'의 길로 들어섰다. 이곳에서는 30~40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코브니 여사는 "한지 공예를 계속하고 싶다는 열정 때문에 스스로 공부했다"며 "다른 사람을 도와 새로운 한지 공예품을 만드는 재미도 쏠쏠했다"고 한지 공예를 손에서 떼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지 공예품을 만들어 영국과 뉴질랜드 등 호주 안팎에 판매했으며, 미국 뉴욕의 한 박물관 내 점포에 판 적도 있다.

2014년 중반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한지 공예에 대한 애정은 계속 됐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집안 곳곳을 차지한 한지 공예품에 관심을 보이자 10여 명을 모아 강습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전시회도 열었다. 한지 관련 영문 서적이 없는 것을 알고는 책을 쓰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종이조형작가협회(IAPMA) 회의에도 참석해 한지 공예의 멋을 알릴 예정이다.

코브니 여사는 이번 한지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한지공예품 전시회에 차 탁자, 캐비닛, 보석함 등 5점을 내놓으며 솜씨를 뽐냈다. 창

캐나다 주 고등법원의 한인 최초 여성 판사 **그레이스 최**

정년이 75세인 최고위급 권위직

캐나다 법조계에서 고등법원 판사는 최고위급 명예 · 권위직으로 통한다. 캐나다 동포인 그레이스 최(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씨는 2015년 6월 5일 한인 최초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고등법원 여성 판사가 됐다. 밴쿠버 소재 법무법인 '젠킨스 마즈번 로건'에서 가족법 담당 수석 변호사로 재직한 그는 연방법에 따라 지명된 한인 최초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캐나다의 주 고등법원은 법정 민생 사건을 주로 다루는 지방법원의 상급심이자, 나머지 주요 사건의 1심 재판도 관할해 캐나다 사법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최 판사는 법학을 공부하기 전 토론토 피아노연주대학 과정을 마치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92년 댈하우지대학 법대를 졸업한 후 이듬해 BC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법무법인 데이비스에서 2005년까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동안 그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주 내에서 명성과 업적을 쌓았고 캐나다 및 BC주 변호사협회의 가족법 전문위원장도 맡아왔다. 또 각종 학회나 법률 전문지를 무대로 가족법 관련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강의도 해왔다.

캐나다의 주 고등법원 판사는 주내에서 법무장관과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변협 등 법조계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방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히 그는 지난해 캐나다 법조인으로 최고의 명예로 꼽히는 '퀸스 카운슬(Queen's Counsel:왕실 변호사)'로 지명되면서 자질과 자격을 인정받았다. 퀸스 카운슬은 극소수 법조인에게만 주어지며 이들은 약자인 QC를 자신의 직함 맨 앞으로 내세운다. 주 고등판사는 정년이 75세로 사실상 종신직이며 연방법에 따라 신분과 지위가 철저하게 보장된다.

도쿄에서 한국 도서 전문 북카페 운영하는 쿠온코리아 **김승복** 대표

박경리 '토지' 전 20권 일본어판 작업중

도쿄에서 한국 관련 서적 전문 출판사 '쿠온'과 북카페 '책거리'를 운영하는 김승복 씨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하소설의 하나인 박경리(1926~2008)의 '토지' 전 20권을 일본어판으로 일본에서 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 속에 일본 내 혐한 감정이 거세진 가운데 총 소요기간 7년(번역 등)에 비용 약 1억 엔(약 10억 원 · 출판사의 추정치)이 필요한 대형 사업을 벌인 셈이다.

김 사장은 직접 한국 작가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 자신이 운영하는 '쿠온'에서 출판하는 한편 한국 작품을 일본의 대형 출판사에 소개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쿠온에서 낸 대표작으로는 신경림, 은희경, 한강, 구효서, 박민규 등 한국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 '새로운 한국 문학' 시리즈 13권이 있다. 또 신경림 시인과 일본의 다니카와 슌타로(谷川俊太郎) 시인이 나눈 문학적 교감을 기록한 '대담 · 대시(對談 · 對詩) · 에세이집'도 냈다.

더불어 김 씨가 2015년 7월 문을 연 '책거리'는 독자를 위

한 작가와의 대화, 출판 기념회, 강연회, 독서 토론회 등을 수시로 열어 한일 작가의 토크 이벤트와 양국 출판인의 교류 공간이 되고 있다. 그는 한국 문학을 일본인에게 소개하는 일에 대해 "순전히 좋아서 하는 것"이라며 "한국 문학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복 대표는 올 1월 불교연구가인 다카모리 겐테쓰(高森顯徹)가 쓴 '왜 사는가'와 '내 인생의 꽃다발'을 잇따라 발간하며 일본어 책의 국내 출판도 겸하기로 했다. 다카모리 겐테쓰와 의사인 아케하시 다이지(明橋大二), 철학자 이토 겐타로(伊藤健太郎)가 함께 집필한 '왜 사는가'는 인생의 목적을 묻는 책이다. '내 인생의 꽃다발'은 다카모리 겐테쓰가 모은 77가지의 지혜로운 이야기로 구성됐다. 김승복 대표는 "이 책들은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옳게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미슐랭 '별' 받은 리옹 거주 한인 셰프 **이영훈** 씨

프랑스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 받은 별

세계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 · 안내서로 유명한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가 2월 1일 발표한 2016년판 미슐랭 가이드에서 이영훈(33) 셰프가 프랑스 거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별 하나를 받았다.

한국관광대 호텔조리과를 졸업하고 2009년 프랑스에 건너와 폴 보퀴즈 요리학교에서 공부한 이 셰프는 2014년 4월 프랑스에서도 미식의 도시로 유명한 리옹에서 레스토랑 '르 파스 탕'(Le Passe Temps · 기분전환이라는 뜻)을 개업했다. 르 파스 탕은 프랑스 레스토랑이지만 소믈리에(와인 전문가), 요리사 등 직원이 모두 한국인이다.

미슐랭 가이드는 수준에 따라 별을 하나에서 세 개까지 붙여 등급을 분류하는데 그의 레스토랑은 별 한 개 레스토랑으로 새로 뽑힌 42곳에 포함됐다. 그는 식당을 열 때 미슐랭 가이드 별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셰프는 "프랑스에서 일본인 셰프는 20명이 넘게 미슐랭 별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도 프랑스 요리를 잘하는 것을 보여주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90m² 크기에 좌석 수가 26개에 불과한 르 파스 탕의 대표 요리는 한국 요리 수제비에서 모티브를 따 온 푸아그라 요리다. 팬에 구운 오리 간 푸아그라에 계절 채소, 쪽파, 김 가루를 넣고 멸치 육수를 부은 것이다. 그 외에 겨울 뿌리채소와 송로버섯을 곁들인 비둘기 요리, 프라이팬에 구운 자연산 생대구와 유자를 넣은 그르노블식 소스 돼지감자칩 요리 등이 있다.

미슐랭 가이드 발표 후 그는 하루 인터넷으로만 100~200건의 예약을 받고 있다. 레스토랑 전화기도 온종일 예약 전화로 불이 난다. 선정 발표 후 사흘 만에 2월 예약이 모두 다 찼을 정도라고 한다. 창

한인 시장 둔 페루 찬차마요시에 한국의 무상 지원 잇달아

▲ 한국 정부는 정흥원 페루 찬차마요시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에 보건소를 건립하는 착공식을 열었다.

◀ 서울시는 2014년 2월 찬차마요시 산라몬 지역에서 취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중남미 최초의 한인 시장을 둔 페루 찬차마요시(시장 정흥원)에 한국의 무상 지원이 잇달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정흥원 시장은 한국 정부에 보건소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무상원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고 이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2013년부터 250만 달러(약 30억 2천8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건소 건립을 비롯해 기자재 지원 등 '보건 의료 역량강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가운데 '제9 한-페루 유리나키 모자보건소'는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2월 16일 열린 착공식에는 송창훈 코이카 페루사무소장, 김태원 주페루 한국대사관 참사관, 정흥원 시장, 앙헬 운추파이코 페루 후닌 주지사, 지역 주민 1천여 명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부지 선정 문제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협력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리나키 보건소는 찬차마요 시내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 더 들어가는 오지에 지어지고 있다. 현재 낙후된 소규모 보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연면적 1천400m^2 규모로 신축해 응급 시설 · 초음파 설비 등을 갖춘 현대적인 보건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또 모자 보건에 초점을 두어 보건소 기능을 개편, 분만실 · 회복실 · 산전검사실 등의 산과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 찬차마요 보건국은 이 보건소가 문을 열면 인근 지역 주민 3만여 명이 향상된 보건 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흥원 시장은 2012년 박원순 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을 요청해 그 결실을 보기도 했다. 찬차마요시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315km 떨어진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밀림지역 중간 산악지대에 위치한 인구 20만 명 도시다. 정수시설 없이 강물을 소독만 해서 공급해 수돗물 오염도가 높고 수도관이 낡아서 누수가 심했다.

서울시는 페루 찬차마요시 산라몬 지역에 2014년 정수장을 건설한 데 이어 2015년 11월 20일 송 ·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상수도 시설 개선 1단계 사업을 완료해 찬차마요시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라몬 정수장에서는 하루 평균 7천t의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흥원 시장은 또 2015년 5월 1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청사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찬차마요시 간의 소방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찬차마요시에 소방펌프차와 구급차 각 1대를 무상 제공하고 화재 진압 및 장비 운용 방법을 교육했다. 창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일하다 다치면?

"귀국한 외국인도 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과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015년 4월 21일 귀국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사업주 대신 보상을 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치료 · 보상 ·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중한 보상 비용을 분산시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재의 인정 근거가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둘째, 근로자의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정률 보상 방식이다. 셋째,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되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가정부 등)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특례제도를 두어 중 · 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골프장 캐디 · 학습지 교사 · 보험설계사 · 레미콘 자차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치유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이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요양 중인 폐질 등급(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 1~3급 해당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한편 간병급여는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직업재활급여는 60세 미만의 장해 1~9급의 산재근로자로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 훈련수당 등을 지급한다. 업무상 사망에 대해 실제 장제를 행한 경우에는 장의비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도 면제된다. 창

Q&A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기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귀국 후에는 현지에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년 8월부터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가 공단이 운영하는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금을 해외 송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국민 단합과 국회의 하나 된 힘 호소

1

2

3

1, 2.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3.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2월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국민 단합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지만,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 현안으로 국회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 · 외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철저히 분리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 ·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고강도 대북 압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 THAAD)의 배치에 대한 한미 간 공식 협의 착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의 고강도 조치를 내놨던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양자 · 다자적으로 강한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 러시아와는 연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창

OKF NEWS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조규형 이사장, 각국 한글학교에 격려 메시지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은 2월 25일 세계 각국에서 새 학기 개강에 맞춰 한글학교에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의 한글학교는 봄 · 가을 학기로 나누어 각각 15주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미주 지역의 경우 80% 이상이 2월 둘째 주부터 5월 말까지 봄 학기,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가을 학기로 편성해 운영 중이다.

조 이사장은 이들 한글학교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전수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일들은 누구라도 해야 된다는 믿음 하나로 교사 여러분께서 해오신 열정, 헌신,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학생들을 한글학교에 데리고 오는 학부모 여러분도 훌륭한 교육자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한다 '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재단도 한글학교 교육, 교재 편찬, 학생 초청 연수 등에 힘쓰고 있다"면서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인 차세대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국에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 · 문화 등을 가르치는 한글학교는 117개국에 1천900여 개가 있으며 교사는 1만 5천여 명, 학생은 10만 2천여 명에 달한다.

"차세대 동포 장학생 선발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고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제19기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을 모집한다.

세계 각국의 차세대 동포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해 고국에서 유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민족 인재를 육성하려는 취지다.

학사 과정 30여 명, 석 · 박사 과정 50여 명을 선발하며 고려인과 조선족 등 특수 지역 동포 중에서는 60여 명을 별도로 모집한다.

향후 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자질 등을 갖추고, 한국에서 유사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서는 3월 30일까지 거주국의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안넷(www.korean.net)이나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홈페이지(www.scholarship.korean.net)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82-2-3415-0176), 이메일(scholarship@okf.or.kr)로 가능하다.

한글학교 교사연수 파견강사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2월 16일 The-K호텔 대금홀에서 '2015년 한글학교 현지교사연수 파견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2월 16일 서울 서초구 The-K호텔 대금홀에서 '2015년 한글학교 현지교사연수 파견강사 간담회'를 개최해 파견을 다녀온 강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호간 지속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글학교는 차세대에게 자신의 뿌리를 확인시켜주는 소통 창구이자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한국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훌륭한 교육기관"이라며"한글학교 교사 연수, 교재,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파견강사들은 연수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했고 재단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연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창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에 앞장선 정광수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운 한평생

박경란 | 재독 칼럼니스트

시간의 앨범을 들여다보며 정 씨는 속울음을 토해냈다. 기억 켜켜이 묻어 있는 삶의 궤적을 따라 세월을 거슬러갔다. 오랜 기억의 빗장은 허물없이 열렸고, 때론 추억으로 때론 상처로 어루만지고 내리쳤다.

"아버지가 49살이 되던 해 17살인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한마디로 논 열 마지기에 팔려왔어요. 그 처녀가 바로 저희 어머니구요."

정광수(65) 씨의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의 딸로 부잣집에 시집가면 친정집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단다. 당시만 해도 만석꾼이었던 아버지는 애 셋을 낳은 첫 부인과 사별하고 첩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식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67살일 때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고 7년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정 씨가 태어난 1950년은 전쟁 통이었고, 동란 후에는 토지개혁으로 아버지의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동복 · 이복을 합쳐 12남매와 어머니 사이에서 정 씨는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3살 때 천연두를 앓았다. 얼굴에 더덕더덕 뚫린 흉터 구멍들을 볼 때마다 절망감에 몸서리쳤다. 더구나 어머니는 그를 낳을 때 여러 번 낙태 시도를 했다.

"내가 그렇게 죽기를 바랐다는데…. 아버지가 독한 년이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난 살려는 의지가 강했나봐요. 천연두에 걸려 죽은 애들이 많았는데 그때도 살아남았으니까."

젊은 어머니는 항상 도망갈 꿈을 꿨고 어린 광수는 자살을 꿈꿨다.

사춘기 무렵인 어느 날 그는 삼천포 앞바다가 보이는 곳 벼랑 끝 바위 위에 올라섰다. 그때 퍼뜩 뇌리를 스치는 것은 바다 저 끝 어딘가에 가고 싶다는 거였다.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다.

어느 날이었다. 누군가 가져온 신문에서 정 씨의 눈에 섬광처럼 다가온 문구. 파독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눈이 번쩍 뜨였죠. 집을 떠날 유일한 기회일 것 같았어요. 이 지독한 운명의 고리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를 졸라 간호보조원 학원에 등록하고, 1년 동안 간호 일을 배웠다. 이후 파독 간호사에 지원했고, 결국 꿈을 이뤘다. 오빠들은 노발대발이었다.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정 씨는 가장 아픈 새끼손가락이었다. 그런 막내가 막상 이국만리로 떠난다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하지만 정 씨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당시 스무 살이던 그는 결국 3년만 있다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1970년 독일에 도착한 정 씨는 온통 회색빛인 우울한 독일의 하늘을 보고 또 울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운명에 주저하지 않았다. 병동에 근무하면서 시간을 쪼개 간호학교를 다녔고 1975년에 졸업했다. 그해부터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독일에

서 맨 처음 인공수정을 시도한 병원이기도 하다.

80년대 들어서는 에이즈센터를 구축하면서 내시경 관리 담당 간호사로 일했다. 이후엔 심장내과로 옮겨 2014년까지 28년간 심장연구소 수간호사로 일한 후 정년퇴직했다. 그녀는 독일의 심장연구 발전을 눈으로 지켜본 장본인이다.

그녀의 열정에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1975년 독일 지하철 안이었다. 비록 얼굴색이 검었지만 첫인상이 똑똑하고 야무져 보였다. 남편 피터는 우간다 출신으로 베를린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멘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결혼한다고 한국에 소식을 알렸을 때 오빠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유는 피부색이었다. 1980년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비석에 자식들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딸 정광수 옆에 사위 피터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나중에 오빠가 독일에 와 정 씨가 사는 모습을 보고서야 안심을 했다고 한다.

정 씨는 1982년에 아들 스티브를 낳았고 한글학교를 보내며 정체성 교육을 시켰다.

"한국인들로부터 아들이 차별을 받기도 했죠. 백인도 아닌 흑인과의 혼혈인이니까요. 한글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도록 한국 아이들을 데려다 집에서 재우고 놀게 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아이가 참 잘 컸어요."

남편 피터는 자신의 모국인 우간다를 그리워했다. 당시 우간다는 군사독재로 방문이 어려웠다. 1986년에야 정 씨는 남편과 함께 우간다를 방문했다.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린 우간다는 그때 에이즈 천국이 되어 있었다.

"정년퇴직을 하자 남편이 자신의 조국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든 단체가 사단법인 '힐페 퓌어 아프리카-게겐 에이즈 운트 말라리아' (Hilfe für Afrika-gegen Aids und Malaria e.V., 아프리카를 위한 도움-에이즈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입니다."

2003년에 단체를 설립했고, 우간다에 있던 남편의 땅에 집을 지었다. 위층에는 병원을 세우고 아래층은 직업학교를 만들었다. 정 씨 또한 자신이 근무한 병원에서 병원 물자 등을 지원받아 보내곤 했다.

단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던 2014년이었다. 당시 남편과 함께 우간다를 방문한 그녀는 먼저 독일로 왔는데 이틀 후 느닷없이 우간다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곧바로 우간다로 달려간 그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는 살아갈 힘을 잃었다.

하지만 그때 아들 스티브가 힘없이 쓰러진 정 씨의 손을 일으켰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에는 우간다에 아버지의 생각을 담은 한국, 독일, 우간다 세 국가를 상징하는 작은 비석도 세웠다. 정 씨는 현재 아들과 함께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아프리카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조기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3유로면 말라리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한 달에 35유로면 꺼져가는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정 씨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돼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남편 피터의 생명이 아프리카에 희망이 되었을 거라고 말한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꽃을 피운다. 그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의 기운은 힘을 얻는다. 정 씨는 오늘도 소외받은 아프리카 땅에 희망의 꽃씨를 퍼뜨린다. 그녀가 어린 시절 절망의 순간에 먼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우간다는 그녀가 사는 독일 땅을 바라보며 희망을 꿈꾼다. 창

콩나물

김태수 미국 | 2015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물세례로 거듭나서 내공이 쭉쭉 자라
마주한 두 마음이 한 생애 이룬 조화
따순 맘
나눈 식탁에
가족 꽃을 피운다

몸뚱이 부서지며 메마른 세상 떠돌아도
해장국 한 사발로 속풀이 달래주고
외로움
비벼 어우러져
참맛 내며 새살댄다

아버지 한숨 소리 어머니 젖은 눈가
동고동락 해오면서 대물림 이어왔다
물리지 않는 맛 속에
애환 녹인 음표로

기당게 키워온 꿈 보금자리 차고나와
언 땅까지 날아와 따스한 정 토해낸다
말끔히
시린 삶 우려
시원함을 내준다 창

바른 말 고운 말

둔치 / 갓길

한강변에는 서울 시민의 휴식처로 잘 단장돼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산책로, 자전거 도로, 수영장 같은 시설이 잘돼 있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고수부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고수부지'는 물이 차올랐을 때 물에 잠기는 땅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본식 한자의 조합으로 나온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강이나 호수의 가장자리에 있는 언덕을 가리키는 우리말 표현은 '둔치'입니다.

고속도로에는 비상용 차량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일부 길 양옆에 가장자리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노견, 길어깨, 갓길' 등의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중 '노견'은 '길어깨'의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우리말 표현이 '가에 있는 길'이라는 뜻의 '갓길'인데 참 잘 만들어진 말입니다.

'고수부지'나 '노견'이라는 말보다는 '둔치'나 '갓길'이라는 우리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파람 / 된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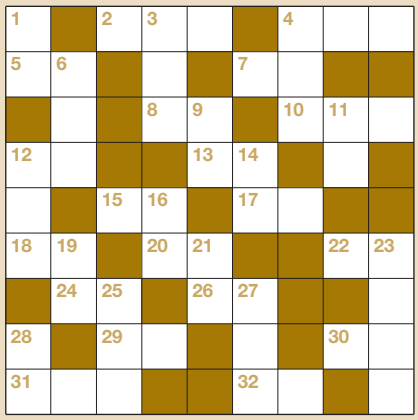
우리 속담 가운데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먹었는지 모를 만큼 음식을 매우 빨리 먹어 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마파람'은 뱃사람들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남풍'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는 '남쪽'을 말하고, '파람'은 '바람'이 변화된 형태이지요.

'마파람' 이외에도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켜서 '된바람'이라고 했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하늬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하늬바람'은 글자 모양이나 발음이 예뻐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동풍'은 '샛바람' 또는 '동부새'라고도 하는데, 예로부터 '동풍에 곡식이 병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창 낟알이 익어갈 무렵에 때 아닌 동풍이 불면 곡식이 못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오른쪽 방향 열쇠

2.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1919년의 3·1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
4. 의류를 파는 가게에서 선전하기 위해 옷을 입혀 놓는 사람 모형
5.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
7.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8.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10.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12.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가려서 즐겨 먹음
13. 얼굴을 닦는 일
15. 베어 낸 그대로 아직 가공하지 아니한 나무
17. 무예를 닦는 곳
18.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
20.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
22.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
24. 요사스럽고 못된 잡귀를 통틀어 이르는 말
26.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
29. 경마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말에 돈을 걸고 사는 표
30.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
31. 글씨나 그림 따위를 지우는 물건
32. 주소, 이름 따위를 적어서 대문 위나 옆에 붙이는 작은 패

▶ 아래쪽 방향 열쇠

1. 이십사절기의 하나. 대한과 우수 사이에 들며, 이때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한다.
3. 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보통의 사람
4. 논밭 넓이의 단위로 논 약 300평 정도이다.
6. 추도의 뜻을 표하기 위한 의식
9. '나이'의 높임말
11.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등교함
12. 편지를 쓰는 종이
14. 얼굴이나 몸에 난 수염이나 잔털을 깎음
16. 고려 시대에, 지방 행정 단위의 하나인 목에 파견되던 지방관
19. 칼로 음식의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에 밑에 받치는 것
21. 어떤 일을 책임지고 돌보는 차례가 됨. 또는 그 차례가 된 사람
23.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25.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를 막는 물건
27.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를 환영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 문 같은 형식의 건축물
28. 아랫도리에 입는 옷의 하나. 위는 통으로 되고 아래에는 두 다리를 꿰는 가랑이가 있다.

▶ 2월호 정답

	목		배	치	도		어	
식	욕		수			죽	부	인
	탕		진		진			
만		축		표	주	박		밥
년		구	멍			치	명	상
설	날			골		기		
			아	방	궁			강
유	행		수		사	시	사	철
	상		라	면		계		

경상북도 영덕군 특산물 영덕대게

“이 맛 모르고 이 봄 보내지 마소”

1. 지난해 영덕대게 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신구(왼쪽 세 번째) 씨가 영덕대게 홍보 촬영을 하고 있다.
2. 영덕대게의 집산지로 유명한 영덕 최대의 항구 강구항

경상북도 영덕군의 특산물인 대게는 각종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유의 담백한 맛으로 유명하다. 게가 크다고 ‘대(大)게’가 아니라 다리 모양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디가 있어 ‘대(竹)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강구항은 지명도 면에서 국내 최고의 대게 관광지로 꼽히는 곳이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게 철에는 영덕 강구항 일대가 대게를 맛보려는 전국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7번 국도를 따라 강구항으로 이어진 해안도로변 식당은 저마다 특색 있는 형태의 게 간판을 내걸어 놓았다.

대게는 수심 300m 안팎의 심해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데 몸통 너비가 9cm 이상이어야 잡을 수 있다.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그물에서 떼어내는 족족 바다로 던져진다.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빵게’라 불리는 암컷도 포획이 금지돼 있다.

강구항에선 관광객이 대게를 직접 구입해 식당에 가져가 자릿값을 내고 먹는 게 보편적이다. 이때 대게를 쪄 주는 비용, 채소, 양념값이 추가된다. 포구 안쪽에 자리한 동광어시장에는 1층에 수족관을 갖춘 60여 곳의 대게 판매점이 있다.

강구항에는 대게 식당이 부지기수로 많지만 먹는 방법은 손질이나 양념 없이 그냥 쪄서

3. 찜통 안에서 20분간 익힌 대게를 식히고 있다. 대게는 같은 크기라 해도 속살이 여문 정도에 따라 2~3배 값 차이가 난다.
4. 강구수협에서 어민들이 잡아온 대게 위탁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5. 영덕대게 물회

먹는 게 일반적이다. 대게 식당 앞은 어디나 찜통 안에서 사우나를 하고 나온 대게가 몸을 식히느라 여념이 없다. 찜과 달리 대게를 날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홋게'가 이에 해당된다. 홋게는 탈피 직전의 대게로 다리 마디를 꺾어 살을 빼면 말단까지 쏙 빠져나온다.

영덕대게 물회도 별미다. 대게와 해산물, 채소류, 과일을 섞어 만든 육수에 싱싱한 회를 넣은 대게 물회는 독특한 맛으로 식도락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강구항 어민들은 강구 앞바다에서 잡힌 대게가 가장 맛이 좋다고 강조한다. 강구 바다는 바닥이 사질(모래)이라 대게가 쫄깃하고 향긋한 단맛이 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뻘이 많은 일부 지역 대게는 껍데기가 두껍고 맛이 텁텁해 '타박대게'로 불린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이 영덕산과 연근해산의 맛을 구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게는 같은 크기라도 속살이 꽉 차면 가격이 2~3배 올라간다. 이른바 '박달대게'이다. 박달대게는 살이 박달나무처럼 야물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어디에서 잡히든, 크기가 어떻든 살이 차 있으면 박달대게로 분류된다. 뱃속이 야무지게 꽉 들어찬 박달대게는 무게가 1.5kg에 육박하기도 한다.

매년 4월 전후에는 축제도 열린다.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올해 '제19회 영덕 대게축제'는 3월 31부터 4월 3일까지 영덕군 강구항 일원에서 열린다. 다양한 체험 행사와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축제에서는 그물과 낚시로 직접 대게를 잡아볼 수 있다. 또 대게요리 시식, 대게 잡이 어선 승선 체험, 수레에 대게를 싣고 이어달리기 등 즐길 거리가 많다. 대게, 게장, 영덕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맛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한다. 야간 음악회, 축제 주제극 공연, 축제 주제관 운영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대게축제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경북도 최우수 축제로 뽑히는 등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 해마다 축제 때면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영덕대게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수산물 부문에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창

Tip

▶ 영덕 블루로드 '푸른 대게의 길'

영덕 블루로드는 부산 오륙도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688km 해파랑길의 일부로 영덕군 초입 지점인 남정면 부경리를 출발해 강구항과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64.6km의 탐방로다. 그 중 B코스인 '푸른 대게의 길'은 해맞이공원에서 대게 원조마을을 거쳐 축산항에 이르는 15.5km 구간이다. '환상의 바닷길'로 불리는 이 길은 걷는 내내 쪽빛 바다를 시야에 담을 수 있는 탐방로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영덕군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칠보산 자연휴양림 → 고래불해수욕장 → 대진해수욕장 → 강구항 → 옥계계곡 → 팔각산
- **관광 안내**
  영덕군 관광진흥과(054-730-6114)
  영덕군 문화관광포털
  (http://tour.yd.go.kr)
- **대중교통**
  고속버스(서울 – 영덕 4시간 소요)
- **식당 정보**
  동해안횟집(054-733-4800)
  화림산가든(054-734-0945)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

알쏭달쏭 답답한 민원을 코리안넷 재외동포신문고에 똑똑! 노크하세요

코리안넷(www.korean.net)의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신청하는 공간입니다. 코리안넷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국내 본인인증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민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신청 분야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는 병무, 국세, 국적회복, 건강보험, 영사관련 업무 등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국문과 영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코리안넷 회원가입 / 로그인
2. 민원신청 – 온라인 신청서에 민원인 정보 입력
3. 하단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국문 또는 영문 작성
4.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서 첨부 찾아보기에서 파일 Upload
5. 제출
6. 민원신청 완료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 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 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안넷

www.korean.net

재외동포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